

'만경강 수변도시'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 완결판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만경강 일대 '도내 주요 도시 관문' 지리적 이점 주목

익산시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물의 도시' 프로젝트는 지역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금강 용안생태습지, 신흥저수지, 만경강 수변까지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물이 없는 갈증의 도시에서 명품 수변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 가운데 만경강 일대에 추진되는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0년 이후 10여년만에 지역에 추진되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특히 시는 만경강 일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 친화적 요소와 도내 주요 도시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에 주목하고 있다. 세대별 맞춤형 정주여건 조성으로 전주와 김제, 군산, 새만금까지 아우르는 배후도시 뿐 아니라 익산·새만금 메가시티 시대의 광역적 허브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촉촉한 도시기반과 정주여건 마련에 나선 익산시는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살기 좋은 희망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만경강 수변도시 조감도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의 완결판 만경강 프리미엄 수변도시

청년부터 은퇴자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자족형 프리미엄 수변도시 형태로 조성되는 이번 사업은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만경강 수변도시는 강변형 타운하우스, 전원형 단독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 은퇴자 타운 등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이곳은 주거지에서 수변까지 직접 연결하며 거주와 생태교육, 휴양·휴식 기능까지 담당하게 된다.

약 100만㎡(30만평)부지에 1ha당 150명 이하 인 구밀도로 중·저밀도 개발을 기본으로 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만경강과 연계되는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을 조성해 주거지가 하나의 생태거점이 되는 친환경 주거단지 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청년 인구는 물론 은퇴 이후 소비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액티브 시 니어(active senior)계층을 유입해 광역적 거주 허브 기능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금강의 용안생태습지와 옹포 관광지를 연계한 강변 힐링공간과 신흥저수지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 탑천 자전거 도로 정비 등 도심 속 친수공간을 조성해 매력적인 수변도시로 도약한다.

청년부터 은퇴자까지 함께하는 복합주거단지 조성

만경강 수변도시의 청년부터 은퇴자까지 전 계층이 함께할 수 있는 복합주거단지이다.

우선 익산시는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을 통해 6천여 세대를 공급한다. 이곳에 건설될 아파트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법적 기준비율인 20%를 넘어 50%까지 확보해 공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청년부터 은퇴자까지 아우르는 자족형으로 조성 첨단생활시스템 도입 신개념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

임대료는 기존 임대 시세의 85% 이하에서 70~85%로 책정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수변도시 내에 청년 창업공간을 조성해 삶과 삶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승화시켜 청년들의 꿈을 이루고 머물고 싶은 주거단지로 발전시킨다.

이러 익산을 떠났던 은퇴자가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경제지립형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경제지립형 주거단지는 경제활동과 사회적 교류에 적극 참여하는 이른바 '액티브시니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수익형 스마트팜과 태양광 등 입주자 참여형 수익모델을 도입하고 대학병원과 연계한 의료시설 유치, 지역대학의 평생교육과 체육·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후 걱정 없는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개념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

익산시는 만경강 수변도시에 첨단생활시스템을 도입해 신개념 미래 스마트도시를 구현한다. 돌봄부터 중증·응급의료 케어에 이르는 스마트 커뮤니티 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스마트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의료 서비스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응급상황 발생 시 협력해나가는 모델이다.

이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기반시설을 준비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운행, 내부순환 자율주행차 등 첨단교통수단 도입으로 미래 도시를 선도한다.

스마트 도로와 횡단보도 등 스마트 교통기반과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보행 전용도로를 설계하는 등 안전한 도시 조성에도 힘을 예정이다.

익산·새만금 메가시티 시대 '광역적 허브' 기능 수행

만경강은 자연친화적 환경요소와 전주와 군산, 김제 등을 연계하는 주요 관문인 점에서 지역 발전을 이끌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우수한 여건을 활용해 만경강 수변도시는 인접 도시인구 유인을 위한 통근자 주택지대 역할 뿐 아니라 익산·새만금 메가시티 시대의 광역적 거주 허브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시장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물의 도시 프로젝트'는 미래 익산시의 허파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면밀하게 진행해 나가겠다"며 "제2의 부흥을 꿈꾸는 익산 도약의 첫걸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공사가 진행중인 만경강 수변도시 전경

▶ 정현을 시장에게 듣는다

제2의 익산 부흥의 첫 발

"익산의 거대한 변화, 물의 도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시민들의 갈증을 풀어낼 야심 찬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갈증의 도시, 물이 없어 삭막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떨쳐낼 바로 '물의 도시 프로젝트'다.

정 시장은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전략으로 '수변도시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면서 "익산 새만금 메가시티의 광역적 거주 허브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 새만금 메가시티의 핵심은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이다.

정 시장은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공간적 접근성과 전주, 군산, 김제 등 영향권 내 도시인구 유입 효과를 거둘 최적지"라며 "자연친화형 지리적 강점 등이 내재한 익산의 보석 같은 곳으로 변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경강 수변도시에는 청년·신혼부부 등 젊음이 있는 공간과 경제지립형 은퇴자 단지가 공존하는 주거 중심 공간이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이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물의 도시 프로젝트'의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새만금 메가시티 광역적 거주 허브 기능 담당토록 설계 전주·군산·김제 등 영향권 내 도시인구 유입 효과도"

정 시장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익산을 떠났던 은퇴자가 돌아와 지립할 수 있는 경제지립형 주거단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아파트공급은 기존 임대시세보다 더 완화된 70~85% 이하로 공급하는 동시에 샵터와 필터, 워터가 함께 조성된다.

경제지립형 은퇴자 마을은 의료와 프리미엄 정주환경 조성, 수익형 스마트팜과 태양광 등 수익모델이 겸해진 주거단지로 계획됐다.

만경강 수변도시와 함께 금강변 용안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지정, 신흥공원의 산책로 조성, 탑천 자전거 도로 정비 등을 통해 올해 매력적인 시민 체험형 수변공간을 선보이게 된다.

정 시장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물의 도시 프로젝트'는 미래 익산시의 허파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면밀하게 진행해 나가겠다"며 "제2의 부흥을 꿈꾸는 익산 도약의 첫걸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